

스승과의 만남

| 김흥호 |

진정한 스승은 절대적 세계를 전해주는 존재이지, 상대적인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을 전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 절대적 세계를 전할 때 나는 무(無)가 된다는 것도...(편집자 주).



누가복음 9:28~36

예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에 그 모습이 변하고, 많이 변하고 눈부시게 빛났다. 이때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아들, 내가 택한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 호의 주제는 <스승과의 만남>인데 이 스승과의 만남이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동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스승이란 선생과 달라서 지식의 전달자가 아닙니다. 제자도 학생과는 달라서 지식을 단순히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스승과 제자라는 이 문제는 순전히 사는 문제인데 그렇기 때문에 스승과 제자라는 관계처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제자라는 말을 ‘탈무드’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성경 다음으로 『탈무드』를 소중히 여깁니다. 『탈무드』는 선생과 제자 사이에 전해진 삶의 지혜를 적은 책입니다. 그리고 인도 사람들은 선생과 제자 사이에 정해진 삶의 비밀을 ‘우파니샤드’라고 하는데, 그 뜻은 ‘스승의 무릎 밑에 앉아서’입니다. 그러니까 인도의 ‘우파니샤드’나 유대 사람들의 ‘탈무드’는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승을 만나기 전에, 스승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중에서 내 스승이 누구인가 하고 생각해 볼 때 내 스승은 아무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참 적을 것입니다. 내 스승이 누구다, 라고 단정해서 이름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이란 말은 희랍말로 ‘유다이모니아’인데, ‘다이모니아’는 하나님이란 말이고, ‘유’는 ‘같이’라는 말로 ‘하나님과 같이’라는 뜻입니다. 이 유다이모니아나 우파니샤드나 다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있을 때 행복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같이 됩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스승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먼저 스승을 찾아야 합니다.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인류의 스승이지요. 내가 여러 번 말했지만 예수님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도 아니고, 굉장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도,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인류의 스승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에게는 삶에 대한 뚜렷한 자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쉽게 말하면 스승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 어려우면 바울을 통해서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바울을 만나기가 어려우면 루터를 통해서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루터를 만나기가 어려우면 우리 감리교로 말하면 루터를 소개하는 요한 웨슬리를 통해서 루터를 만난다든지 하는 식으로 2천 년 전의 예수님을 만나는 길을 시간적으로 자꾸자꾸 가까운 곳에서 찾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제일 적게는 이 현실의, 이 시대에서 스승을 찾을 수 있다면 그 이상 좋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을 삼위일체라 하여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성부를 만나는 길은 성자를 통하는 것이 좋고, 성자를 만나는 길은 성령을 통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통한다는 것이 자칫하면 미신으로 흐르기가 쉽습니다. 더구나 교회의 큰 문제가 바로 그것이 아닙니까.

대구에서 제일 큰 대구 제일교회 목사님이 중앙성결교회에 와서 부흥회를 했다는데 그 목사님이 밤에 안수 기도를 하는 동안에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이 기쁜 소식을 나한테 제일 먼저 알리려고 우리 졸업생 중의 한 명이 왔습니다. 성령 받았다고 하는 것을 들어 보니까 결론적으로 정신분열이 되어 있던 것이더군요. 마침 그 사람의 남편이 의사라서 전화를 걸어 빨리 입원시키라고 해서 동대문병원에 석 달 정도 입원을 하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요새는 자칫하면 정신분열이 된 것을, 성령을 받은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여튼 성령 받는다는

말은 참 위험한 말입니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는 더욱이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스승이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루터, 요한 웨슬리, 사도 바울, 모두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깐 사람, 산 사람, 큰 사람인데 깐 사람, 산 사람, 큰 사람이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행복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큰 행복이 있다면 스승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학을 다녔다고 스승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대학에서 여러 선생님을 만나지만 그분들이 모두 스승인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도 많은 선생을 대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다 스승인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호 주제를 <스승과의 만남>으로 했는데, 이 만남이란 그저 이렇게 만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스승과의 만남은 이심전심하는 만남이고, 스승의 핵심과 나의 핵심이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는 말을 자꾸 하는 것은 만남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의 산상 변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나려고 해도 제자들이 자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동양식으로 말하자면 ‘장님 코끼리 만지기[群盲撫象]’이지요. 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눈을 감고 있다. 눈을 감고 있으니 스승을 만지기만 하지 보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본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선생님의 핵심을 보는 것이지요. 선생님의 핵심과 내 핵심이 만나는 것이지 그저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만남이란 말은 영어의 meeting 한다는 meet란 말로는 쓸 수 없는데 왜냐하면 meet는 그냥 만난다는 뜻만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핵심의 만남을 encounter라고 하는데 이렇게 핵심과 핵심이 만나 놓으면 지금까지의 걸어가던 방향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회심이란 말을 쓰는데 지금까지 이 으로 갔으면 이젠 다른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래로 내려갔으니 위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삶이 한번 뒤집히는 경험을 만남이라고 합니다. 그것 없이는 만남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남이라는 문제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한 시간에 말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만남이란 것은 상당히 소중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서든지 스승을 만나서 우리가 죽을 때 누가 내 옆에서 “네 스승이 누군가” 하고 물을 때 “내 스승이 누구다” 하고 대답할 수 있으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만일 죽을 때까지도 “내 스승이 누군가”라는 물음에 아무리 생각해 봐도 “누군지 모르겠다”는 대답을 하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적으로 말하자면 “네 스승이 누군가”라는 물음에 “그리스도다”, “예수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신 있게 됩니까.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 내 스승이 누구인지 확실히 느끼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 예수라고 하지만 미팅(meeting)만 했지 엔카운터(encounter)를 못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매 주일 와서 미팅을 아무리 해도 믿음이 생기지 않으니까 신앙이 약하고 부족해서 그런 말을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스승을 만난다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한 번 만나는 것입니다. 한문으로 말하면 천재일우(千載一遇)라고 하는데, 천재는 천 년인데, 천 년이라도 좋고, 일생이라도 좋습니다. 일생에 한 번 만나는

상대가 절대라는 생각이 있을 때 부부싸움을 어떻게 합니까. 절대라는 생각을 할 때 나는 무입니다. 나는 없다고 하는 경험을 한 번 해야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 되기 위해서 스승이 필요한 것입니다.

것이지 여러 번 자꾸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보통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율곡은 퇴계를 꼭 한 번 만났습니다. 율곡이 23세, 퇴계 58세에 그저 한 시간 정도 만났습니다. 그렇지만 그 한 시간의 만남으로 율곡은 퇴계를 일생 자기의 스승으로 모 니다. 또 그 퇴계 없이는 율곡이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요전에도 말했지만 제자가 되려면 문제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도 뭔가 문제를 가지고 애쓰는 것입니다. 자기의 문제를 풀려고 율곡이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나중에는 머리를 쥐고 금강산에 들어가서 중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중이 되어서 문제가 해결이 되었느냐. 안 되었습니다. 다시 나와서 애쓰다가 결국은 퇴계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한번 퇴계를 만났는데 율곡의 갈 길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율곡은 퇴계를 자기의 영원한 선생님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공자의 선생님이 노자인데 공자가 노자를 여러 번 만난 것이 아니라 꼭 한 번 만났습니다. 그 한 번의 만남으로 노자는 공자의 영원한 스승이 된 것입니다. 만남에는 산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서로 시대가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맹자와 공자는 2백 년 차이가 있지만 맹자가 공자를 만남으로 해서 맹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예수도 한 번 만났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그 한 번의 만남이 사도 바울이 되게 하였지, 그

만남이 없었더라면 사도 바울이 절대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루터를 만나는데 그것도 친히 만나는 것이 아니라 루터의 『로마인서 강해』를 읽다가 루터를 만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만남이란 정말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2천 년 전의 예수님을 충분히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만남이란 시간의 제한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초월해서 만날 수 있고, 공간을 초월해서 만날 수 있고, 인간을 초월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만남이란 보통 만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번 만나면 족하지 두 번, 세 번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한 번 만나면 그것으로 그 사람의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남이란 것은 참 중요한 것인데 그 시대에 산 사람 가운데서 스승을 만날 수 있다면 그 이상 행복한 것이 없습니다. 플라톤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것이 소크라테스를 만난 것이라고 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오늘날에는 대단한 사람이지만 플라톤 당시에는 거리바닥에서 헤매는 사람이었습니다. 공자는 “선생은 얼마든지 있다. 세 사람이 걸어가면 두 사람은 선생이다”라고 했습니다. 선생은 어디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 만남을 위해서는 찾아야 합니다.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제자라고 할 때는 반드시 찾는 것이 간절해야 됩니다.

울곡의 경우에도 울곡이 간절히 찾다가 이 퇴계를 만나고서 울곡이 된 것이지, 만일 아무 고민도 없고 빈둥빈둥 놀다가 퇴계를 한 번 만났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만난다고 할 때는 만나기 위한 자기 자신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지, 아무런 준비가 없으면 백 번 만나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 준비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스승을 한 번 만난다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하면 내게 있어서 스승은 절대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스승에게 대해서는 이려고, 저려고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스승은 절대입니다. 내가 전에도 말했지만 스승은 의사와 같은 것입니다. 환자에게 의사는 절대적입니다. 의사를 이러쿵저러쿵 비판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병원에 찾아갈 때 아픈 곳을 숨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가 정말 의사라면 날 알아맞혀라. 꼭 무슨 무당처럼 생각하는가 봅니다. 그래서 알아맞히면 용한 의사고, 알아맞히지 못하면 시시한 의사라고 생각하는 환자가 있습니다. 환자가 되어서 의사를 만난다고 할 때 의사는 절대가 되어야 됩니다. 의사가 약을 먹으라고 하면 약을 먹고, 누워 있으려면 누워 있고, 앉으려면 앉고, 짜라면 짜고, 의사가 절대가 되어야지 의사를 시험해본다든가, 비판해본다든가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기가 뭣하지만 만일 여러분께서 저의 설교를 들을 때 설교를 잘한다든가, 못한다든가 하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저의 설교는 무조건 좋아해야 됩니다. 설교를 듣고 나와서 오늘 설교 잘했다든가, 못했다든가 그렇게 되면 그날 설교는 들은 보람이 없는 것입니다. 스승이라고 할 때 그 스승은 절대입니다. 왜 절대라야 하는가. 그것은 스승이 절대가 될 때 나라고 하는 것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스승이 백이 될 때 내가 그만 제로가 되고 마는 겁니다.

요전에도 필자가, 죽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무아라고 했습니다. 소아가 변해서 대아가 되기 위해서는 한 번 반드시 무아라고 하는 시대를 지나가야 합니다. 이 무아라는 시대를 지나가지 않으면 대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에는 반드시 한 번 무아가 있어야 되는데, 무아가 되려면 스승에

대해서 절대적인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가 무아가 되어야지 스승을 이렇다 저렇다 비판을 하게 되면 무아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스승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훌륭하게 되기 위해서 스승이 한번 절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승이 절대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내게 절대로 보이면 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은 선생님이 소변보는 줄을 모릅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은 선생을 절대로 생각해요. 절대자가 어떻게 소변을 보겠어요. 그러니까 선생이 절대자가 되게 되면 선생의 흠이라든가, 단점이라는 것이 일체 안 보입니다. 보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결혼을 한다고 할 때 상대를 당신이라고 부릅니다. 그 당신의 '당' 자는 마땅 당(當) 자인데 마땅하다는 말은 절대란 말이고, 혹은 이상적인 존재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이상적인 존재는 하나님입니다. 기도할 때 '당신께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아내에게 당신, 그럴 때 내 아내는 내게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내 아내가 못생기고, 잘생기고가 없습니다. 그런 것이 있게 되면 그것은 아내가 아닙니다. 그건 남입니다. 내 아내가 밋게 생겼건, 곱게 생겼건 내게는 절대입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남편이 밋게 생겼건, 잘생겼건, 돈을 벌어 오건, 못 벌어 오건 내게는 절대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지만 만일 그런 절대 없이 우리 남편은 돈을 못 벌어 와서 틀렸다고 생각하면 무슨 당신입니까. 무신(無身)이지. 그러니까 남편이나 아내는 절대입니다. 옛날부터 '군사부 일체(君師父一體)'라는 말을 썼는데 임금은 절대입니다. 스승도 아버지도 절대입니다. 이 세계는 절대 세계이지, 상대적으로 알가알부할 세계가 아닙니다. 스승이 절대가 될 때 나는 무가 됩니다. 남편이 절대가 될 때 나는 무가 되는 것입니다. 이 무를 거쳐야 성숙한

사람이 되지, 그 무를 거치지 못하면 성숙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요전에도 말했지만 싸움하는 사람은 작은 사람입니다. 절대라는 생각이 있을 때 부부싸움을 어떻게 합니까. 절대라는 생각을 할 때 나는 무입니다. 나는 없다고 하는 경험을 한 번 해야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 되기 위해서 스승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는 함석헌 선생 시간에도 가보고, 유영모 선생 시간에도 가 보았습니다. 함석헌 선생의 시간에는 추운 겨울에 불을 때지 않아도 2백여 명이 모이고, 유영모 선생 시간에는 3~4명밖에 모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내게는 유영모 선생이 절대지, 함석헌 선생이 절대가 아닙니다. 나는 그래서 할 수 없이 함석헌 선생을 떠나서 유영모 선생에게로 갔습니다. 유영모 선생은 내게 절대입니다. 함석헌 선생의 작품 속에 있는 ‘우리 선생님’은 전부 유영모 선생입니다. 지난 2월 3일은 유영모 선생이 세상 떠난 지 1주기라 선생님 댁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함석헌 선생은 유영모 선생을 20살 때부터 스승으로 모셨으니까 60여 년을 모신 분인데 근래에 박 정권을 놓고 두 분의 정치적인 견해에 차이가 생겨서 스승과 제자의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물론 함 선생이 허리를 다치셔서 그랬지만 장 식에도 못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도식 때에 함 선생이 오셔서 유영모 선생의 영전에서 “내가 어리석어서, 선생님과의 정치적인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그동안에 선생님을 멀리 했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내가 죽을죄를 지었으니 선생님, 날 용서해 주 시오” 하며 백발이 성성한 함석헌 선생이 충정으로 자기가 죽을죄로 잘못했다고 하는 고백을 했는데 정말 놀랐습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볼 때 함 선생이 잘못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잘한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선생님 앞에서 자기가 죽일 놈이라고 하며 참회하는 것을 보면서 함 선생의

위대함에 다시 한 번 놀랐습니다.

그러니 역시 제자라는 것은 선생님 앞에서는 무입니다. 자기가 공이 되고, 선생님이 백이 되는 데에서 스승의 위대함이 있고, 역시 제자의 위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니까 함 선생은 82세이지만 또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생 앞에 자기를 무조건 공으로 만들 수 있는 존재는 무조건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생이 절대라는 것이지, 선생님이 잘나서 절대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와 스승과의 관계가 된 곳에만 절대라는 것이 다른 곳에서 절대를 찾기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해서든지 스승을 가져야만 합니다. 스승을 가지는 것처럼 행복한 것은 없습니다. (끝) 

- 이 글은 『김홍호 사상 전집-하나님 나라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에서 발췌하였습니다.
- 이 글은 미내사의 허락 없이 무단 전재나 재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저자 | 현재 **김홍호** | 다석 유영모 선생께서 내리신 호는 현재, 1919년 2월 26일 평양에서 부친 김성향과 모친 황성룡 사이의 여섯 형제 중 다섯째로 출생. 1944년 일본 와세다대 법학부 졸업. 1956~1984년 이화여대 기독교학과 교수 및 교목실장. 미국 버틀러대 대학원 종교사학 석사. 1986년 감리교신학대 종교철학과 교수. 1996년 이화여대 명예 철학박사.

빛 힘 숨(자가 부활 승천)

요한복음 강해 (전5권) 세트

김홍호 저 | 사색 권 | 56,000원



『김홍호 사상 전집』 제8권~12권이 출간되었다. 이번 책은 『빛 힘 숨: 필자가 부활 승천』의 제목을 가진 요한복음 강해 다섯 권이다. 이 책은 일러두기에 소개된 것처럼 21장 81절로 구성되어 있다. 21장은 요한복음의 21장이며 81절은 81회의 강의를 말한다.

이 책은 저자 김홍호 선생이 1993년 3월 7일부터 1995년 6월 25일까지 이화여대 대학교회 연경반에서 매주 일요일마다 강의했던 것으로 총 2년 반, 다섯 학기 동안 해온 81회의 강의들이다. 이 강의들을 학기 별로 나누어 전5권으로 출간하였다.



김홍호 사상 전집

기독교 설교집 세트(전6권) (CD 1장 포함)

김홍호 저 | 사색 권 | 40,000원

저자의 강의와 설교 등을 모아 총6권으로 엮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논리대다가 풍부한 비유를 곁들여, 자신이 얻어낸 실천과 깨달음의 지혜를 우리에게 절묘하게 전달해온 저자가 펼쳐온 삶의 철학을 이어나간다.

(구성) 제1권 『사람 삶 사랑』, 제2권 『진리로 자유롭게 하리니』, 제3권 『하나님 나라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제4권 『믿음의 힘』, 제5권 『하루를 사는 사람』, 제6권 『영원을 사는 사람』